

2017년 10월 19일, 애월읍 어음2리 어음2리노인회관, 이효순 조사.  
양한동(남, 1936년생, 애월읍 어음2리)

- 줄거리: 남쪽과 북쪽의 집안끼리 혼인을 하게 되었다. 상객이 예장을 넣은 함을 들고 가서 질문에 대답을 못하면 상객을 무조건 때리는 고약한 풍습이 있어서 사람들은 상객으로 가는 것을 꺼려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자신이 상객으로 가겠다고 자원을 하였다. 사돈집에 예장을 들고 가자마자 먼저 이 사람이 사돈에게 질문을 하였다. 꼬리 미에 한 일 한자가 무엇이라는 질문에 사돈은 온갖 옥편은 다 찾아보아도 찾을 수가 없자, 상객으로 간 사람이 신발을 들고 사돈을 때리기 시작하였다. 이후에는 이런 풍습이 없어졌다.

**[제보자]** 전이는 예장이라고. 예장이라고 썩 가는 게 잇우다.

**[조사자]** 결혼식할 때 쓰는 거마씨?

**[제보자]** 예장. 남, 북군허고 집안이 썩고 완전 까다로운 집안이니까. 함, 그 예장 가져 상객 가켄 허는 놈이 없어. 집안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니까 어떤 잡놈이  
“아, 내가 가 드리겠다.”  
고 헛어.

**[조사자]** 함 들렁?

**[제보자]** 응. 함 들렁. 아, ‘요 새끼 강으네, 저 놈팽이 닮은 거 강으네 한몫 들구 맛앙으네.’, 그딴 신참 가든 질문 허영 모지래문 이걸 뭐 무조건 때린덴 허는 집안이여. 옛날식. ‘게문 요 새끼 혼변 강 얼먹어 보렌.’ 경 허연 이젠 집안에선 참 갈 사람 엇곡 허난 떨영 허는디 내가 가겠다고 지원허연. 아이고, 이거 잘 뻘뻘.  
가난, 참 몰라도 머리가 비상헛주기. 게난 직접 간 그렇게 헛덴마씨.  
“사돈님, 몬저 제가 질문해도 뵈겠습니까?”  
허니, 아, 그렇게 허렌 허니까  
“그러면 꼬리 미에 한 일 한자가 무업니까?”

**[조사자]** 꼬리 미에 한 일?

**[제보자]** 꼬리 మీ에 한 일. 그렇게 딱 물었단 말이며. 옥편에 옥편 뭐 몇 권을 ?저다 놓고 꼬리 మీ에 한 일 찾아 봐도

“게은 제가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해서, 신착을 벗영 헤가난 그루후제는 그 집안에 그 식을 버렸다 허여마씨. 꼬리 మీ에 한 일은 옥편에도 없고 ‘쉐질메 지운 디 그 꼬리에 낭 영 허는 거.’ 잇 우다게. 그 질메예. 짐 쉬을 때. 그걸 구상허연 그 질문을 헛단 말이라. 경 허니 깐 책에 있는 거우파게.

**[조사자]** 없는 거주기.

**[제보자]** 책에 엇인 거. 옥편이렌 현 옥편을 다 훑아도 못 훑았고 행으네.

‘제가 혼번 시작허겠다.’고 해서 그 후엔 그 집안에 이런 식은 하지 말자고 해서 말앗덴 현 말이 잇어.

- 핵심어: 혼인, 예장, 함, 사돈, 질문, 옥편, 질메(길마)